

4/21/19

설교 제목: 부활에 관하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고린도전서 15 장 1-58 절

그리스도의 부활

- (고전 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절관주** 롬 5:2
- (고전 15: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절관주** 갈 3:4
-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 (고전 15: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 (고전 15: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 (고전 15: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절관주** 요 8:21-24
-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절관주** 벰전 1:3
- (고전 15: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 (고전 15: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고전 15: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 (고전 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 (고전 15:27)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 (고전 15: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절관주** 요 14:28, 고전 3:23, 고전 12:6
- (고전 15: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 (고전 15: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절관주** 고후 11:26

-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 (고전 15:32)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 (고전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 (고전 15: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몸의 부활

- (고전 15: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 (고전 15: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절관주** 요 12:24
- (고전 15:37)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 (고전 15: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절관주** 시 104:14
- (고전 15: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 (고전 15: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 (고전 15: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 (고전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 (고전 15: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 (고전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절관주** 창 3:19, 요 3:31
- (고전 15:48)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절관주** 빌 3:20
- (고전 15: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절관주** 창 5:3
- (고전 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 (고전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 (고전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절관주** 마 24:31
- (고전 15: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 (고전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 (고전 15: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 (고전 15:56)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 (고전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절관주** 롬 4:15
-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견지를 피력한 것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부활장으로 부릅니다.

긴 장이긴 하지만 부활절을 맞아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운 부활의 소망을 불러 일으켜 남은 여생을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떤 수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은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

본문은 부활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도 바울은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고로 헬라 문화 특히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헬라 철학에는 세 종류의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에피큐레안(Epicureanism) 학파, 스토익(Stoicism) 학파 그리고 플라톤(Platonism) 아리스토텔레스(Peripateticism) 학파입니다.

에피큐레안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이었고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토익 학파는 에피큐레안 학파와는 정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었으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죽으면 신에게 연합하여 신의 일부가 되어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으므로 해서 개인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히 살고 육체는 없어진다는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철학 사조에 젖어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 거기까지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실임을 증명하는 부활의 증인, 목격자들을 열거합니다.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 베드로, 열두 제자, 500 명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전 15: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죽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입니다.

2.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떤 수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순서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므로 그에 속한 온 인류가 죽은 것과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세가지를 듭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고전 15: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 종교 가운데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베푸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도 죽은 다음에 어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복음 전파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고전 15: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성도가 온갖 위험과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 부활이 없다면 왜 그러겠느냐는 논리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요.

세째,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2)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것은 지금의 하버드 예일 대학교 출신 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길리기아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 였던 다소 출신으로 부와 명예를 갖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며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왜요?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 세상을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한 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뽕 맛고 마리화나 피우고 마약하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다 죽으면 됩니다.

어짜피 끝나는 인생인 걸요.

우리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부활 시 우리의 몸은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전 15: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마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그려보면 우리의 부활시 몸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는데 그 모습이 해 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흰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 17: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 17: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우리도 부활 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던 모습과 같은 형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고전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전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희고 빛나는 아름다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고전 15: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고전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을 쫓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말 저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믿음지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야 하겠습니다.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